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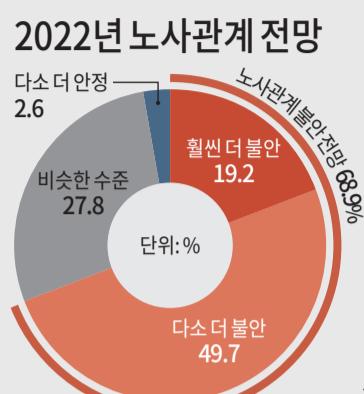
기업 70% “올 노사관계 더 불안”… 임금인상 2% ‘적절’

경총, 151곳 대상 노사관계 전망조사
훨씬 더 불안 19%, 다소 더 불안 50%
요인 49% ‘대선·친노동계 입법환경’
새 정부가 개선해야 할 노동과제
중대재해처벌법·최저임금제 순서

국내 기업 10곳 중 약 7곳은 지난해보다 올해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회원사 151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한 결과 응답기업의 68.9%는 올해 노사관계가 작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훨씬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19.2%였고, ‘다소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답변은 49.7%였다.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망한 기업은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27.8%였다.

올해 노사관계의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대선과 친 노동계 입법환경’을 꼽은 기업이 48.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계 투쟁 증가’(26.4%), ‘고용조정, 산업안전 등 현안 관련 갈등 증가’(12.0%), ‘임단협률 둘러싼 노사갈등 증가’(10.4%) 등의 순이었다.

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선 ‘2%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32.5%로 가장 많았고,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는 ‘임금체계 개편’(25.8%), ‘고용안정’(17.2%), ‘정년연장’(16.6%) 등의 답변이 나왔다.

한편 올해 3월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가 가정 먼저 개선해야 할 노동 분야의 현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잇달아 꼽혔다.

이는 경총에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두 조사는 모두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광역시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이전에 이루어졌다.

전경련이 500대 기업 중 105개사 인사·노무 실무자에게 ‘새 정부가 가장 개선해야 할 노동 과제’를 물은 결과 ‘중대재해처벌법’(28.6%)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근로시간 규제 완화’(23.8%), ‘최저임금제 개선’(21.9%) 순이었다.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해 12월 20~28일 진행됐다.

경총이 회원사 151개 기업에게 실시한 ‘2022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서도 차기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노동 관련 법·제도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33.1%)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부당 노동행위제도 개선’(23.2%),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17.9%)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지난해 12월 21일~올해 1월 4일 15일간 이뤄졌다.

이 같은 연이은 조사 결과는 오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를 보여준다.

황용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이 선거를 앞두고 노동계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 행보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과 부당노동행위제도 등을 시급히 개선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서비스업 고용비율 확대, 경제성장을 저해”

한은 ‘고용구조 변화의 특성 분석’ 제조→서비스 이직자 임금인상을 미이직자 대비 16.2%p나 낮아져

서비스업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고생산성 서비스업(정보서비스업,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을 육성해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의 서비스업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7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BOK이슈 노트 ‘우리나라 고용구조 변화의 특성 분석’에 따르면 산업구조 다각화, 기술 발전 등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는 한 경제의 성장, 불평등 등 다양한 측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을 분해 결과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주세) 저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와 고용구조 변화에 의해 상당 부분 설명 가능하다.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와 고용구조 변화는 지난 1986년부터 2018년 중 경제성장을 하락분의 약 85%라고 설명했다. 이는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둔화(1986년 1.2%→2018년 0.2%)되고 있는 가운데 동부문의 고용 비중이 상승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둔화는 저생산

성 노동자들이 서비스업으로 유입되는 데 상당 부분 기인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경제 수준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최근 들어 저생산성 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의 추가적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면서다.

특히 실직상태에서 재취업한 노동자 중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저하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서비스업으로 저생산성 노동자 유입이 확대되는 데는 수요요인(pull factor)과 공급요인(push factor)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요요인은 서비스수요 확대로 서비스업 고용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했다. 공급요인은 기술발전 등으로 여타 산업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하면서 서비스업으로의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통상 임금둔화를 동반했다.

실증분석을 통해 이직자들의 임금 변화를 추정해 본 결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큰 모습이다.

제조업→서비스업 이직자의 임금상승률은 여타 이직자 대비 19.6%포인트

(p), 잔류자(미이직자) 대비 16.2%p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여타 이직자의 임금상승률은 잔류자 대비 3.4%p 높아 제조업→서비스업 이직 시에만 공급요인이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연령 및 종사자지위별로 보면 고연령층과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자 전환자를 중심으로 공급요인이 중요하게 작동했다.

제조업→서비스업 이직자 중 50대 이상 고연령층, 자영업 전환자들이 동일한 조건의 여타 이직자보다 임금이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면서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 비중 확대는 산업구조 변화, 기술발전 등에 따른 구조적 현상이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고생산성 서비스업을 육성해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의 서비스업 유입을 유도하면서다.

한은은 “제조업 분야의 업무 지식이 서비스업에서도 이용될 수 있도록 산업 간 연계를 강화(제품 판매와 서비스 결합, 서비스업체의 상품 제작 등)해야 한다”며 “이직자 대상 직업교육 방안을 마련해 생산성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신한은행과 KT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식에서 신한은행 진옥동 은행장(왼쪽)이 KT 경영기획부 문장 박종욱 사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신한銀, KT 지분 5.46% 인수 ‘협력 강화’

4가지 사업영역, 23개 사업 협력
메타버스 기반 공동 플랫폼 구축

신한은행이 KT와 23개 사업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장기적인 협업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KT 지분 5.46%(4375억원)를 취득했다.

신한은행은 디지털컴퍼니로 빠르게 도약하기 위해 KT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두 회사는 4가지 사업영역 총 23개 사업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우선 공동 플랫폼 신사업을 추진한다. KT의 기술 역량을 융합한 솔루션을 개발해 고객의 실생활 전반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공동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새로운 영역에서 구축될 공동 플랫폼 사업은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융합서비스, 부동산 플랫폼, 공인전자문서 등이다.

특히 메타버스 융합서비스는 양사가 공동의 경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동의 포인트 개념을 도입해 여러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결제와 회원간 가치이전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KT가 보유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공인전자문서 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한다.

전략적 투자(SI) 펀드도 조성해 기술력 있는 국내외 벤처 등에 공동 투자한다. 공동으로 연구개발(R&D) 조직을 만들어 기술 기반의 금융 융합 프로젝트 수행, 추가 협력과제 발굴 등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MZ 세대 대상 특화 서비스도 공동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통신금융 융합서비스를 선보인다. 신한은행은 KT ‘잘나가게’ 플랫폼과 연계한 전략적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두 회사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과 통신을 융합해 소상공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프라인 센터 구축도 검토하고 있다.

ESG 데이터 관리 솔루션을 개발해 통신기술과 금융 협력을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등을 개발하고 스타트업 회사를 공동 육성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속한 공동사업 수행을 위해 신한은행의 금융인프라 전문 인력과 KT의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 TF를 조직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에 금융을 결합한 미래 디지털 금융 융합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롯데그룹, 일본계 편의점 미니스톱 인수 성공

지분 100% 인수에 3000억 제시

롯데그룹이 일본계 편의점 업체인 미니스톱 인수에 성공했다.

17일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일본이온그룹과 매각주간사 삼일PwC는 롯데그룹을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매각 본입찰에는 이마트 자회사 이마트24와 네

스톤홀딩스 콘서시엄 등 3곳이 참여했다. 롯데그룹은 한국미니스톱 지분 100% 인수에 30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이번 미니스톱 인수를 통해 기존 세븐일레븐 매장 1만1200개에 미니스톱 매장 2603개를 추가하면서 편의점 업계 선두권 싸움에 나서게 됐다. 12월 기준 CU와 GS25는 각각 1만 5500개

전후, 이마트24는 5800개 점포를 가지고 있다. 편의점 업계의 손익분기점은 점포 수 1만개다.

앞서 미니스톱은 2018년 매각을 한 차례 추진해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 PE 운용사인 글렌우드PE가 막바지까지 경합했다. 그러나 당시 이온그룹이 매각가에 불만족하면서 무산됐다.

/김서현 기자 seoh@